구례군, ㈜테라젠바이오와 업무 협약

최첨단 유전체 분석 전문 기술 활용 힐링캠프 운영
김순호 군수 "기술력-청정자연 결합 좋은 시너지"

구례군은 최첨단 유전체 분석 전문기업인 ㈜테라젠바이오와 힐링프로젝트 협력을 위해 1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테라젠바이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와 황태순 ㈜테라젠바이오 대표이사, 김신태 박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힐링캠프 운영과 구례군 자원을 활용한 건강솔루션 개발 등의 힐링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황태순 ㈜테라젠바이오 대표이사는 "특화된 유전체 분석 및 해독 기술을 활용해 영양, 운동, 생활습관 변화 등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의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청정자연 속에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신산업으로 발전시키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며, "㈜테라젠바이오와 기술력과 구례군의 청정자연이 결합하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테라젠바이오와 구례군은 지난 6월에 힐링캠프를 시범운영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박진호 기자

"지역상권 살리자"…12월 말까지
'담양사랑상품권' 특별 할인 연장

담양군은 코로나19로 상권이 침체되어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담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특별할인기간동안 10% 할인이 적용되며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지류 50만원, 모바일 50만원)이다.

지류상품권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관내 소재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에서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올원뱅크,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관내 상품권 가맹점은 지류형 1300여 개소, 모바일 720개소로 담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서 총금액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

더불어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 판매·환전 등이 적발되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특별 할인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구매자에게는 부담을 낮추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담양사랑상품권 구입 및 이용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화순군, 재난기본소득 119억여 원 지급…지급률 95%

7월 말까지 지급 완료…결혼 이민자 263명도 지원 대상에 포함

화순군은 14일 현재 '화순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률이 95%로, 총 119억564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3번째 재난지원금'인 화순형 재난기본소득을 지난달 18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지급 대상 6만2761명 중 5만9782명에게 지급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한 읍·면 방문 신청·지급 기한은 17일까지다. 군은 1인 세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찾아가는 신청·지급'을 운영, 7월 말까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결혼 이민자 263명 중 179명(지급률 68%)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았다.

군은 지난 5월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예산 125억원을 긴급 편성하고, 재난기본소득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세대주가 생계급여·장애인 연금·기초 연금 수령자인 취약계층 1만99세대는 정부 재난지원금처럼 신청 절차 없이 현금(계좌송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군민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작목별 맞춤형 안전장비 보급

곡성군이 지난 15일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일환으로 석곡 월하시 작목반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지원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위험 요소를 개선해 농작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전관리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은 농작업 안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단계별 위험요소를 분석해 선정된 농약보관함과 농기구 정리대, 농작업용 의자, 동력 가지절단기 등 총 10종의 안전장비를 작목반원 36명에게 보급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장비 사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곡성=김광휘 기자

장성군 홍길동체육관 '옐로 콘셉트' 입다

휴관 기간 활용 외관 개선

장성군이 휴관 중인 지역 내 문화·체육시설에 옐로 콘셉트(yellow concept)로 새단장하고 있다.

앞서 군은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한 올해 2월 수영장과 홍길동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들을 발빠르게 임시 휴관 조치했다. 이후 지난 5월 재개관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다시 임시 휴관 조치를 내렸다.

휴관 기간 동안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장성군은 먼저 홍길동체육관 도장 작업에 착수해 최근 마무리했다.

2001년 지어진 홍길동체육관은 건물 외관 일부가 노후되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장성군은 고유의 도시 브랜드인 '옐로우시티 장성'에서 착안한 화사한 노란색으로 건물을 새롭게 디자인했다.

단장을 마친 홍길동체육관은 원거리에서도 이목을 사로잡는다. 특히, 건물 양 측면의 프레임과 전면부의 옐로 포인트가 세련된 느낌을 준다. 올해 말 완공될 예정인 공설운동장(장성 옐로우시티 스타디움)과 더불어 장성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성군은 홍길동체육관에 이어서 수영장과 문화예술회관도 새롭게 디자인할 방침이다.

나주시 영강동 '목공DIY' 교육 수료식

취미반·전문가양성반 12회씩 운영…31명 수료

나주시는 영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0년 영강동 도란도란 목공 DIY교육'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목공DIY교육은 영강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향후 설립될 '목수의 집' 운영 활성화와 지속적인 일자리, 소득 창출을 위한 목공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 'DIY'는 'Do It Yourself'(직접 하시오)의 약어로 가정용품의 제작·수리를 직접 하는 것,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상품 등을 의미한다.

이번 교육은 영산포 지역(영강·영산·이창동) 주민 수강생 4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취미반, 전문가양성반 2개 반으로 나눠 총 24회(각 12회, 20시간) 진행했다.

취미반은 연필꽂이·우드박스·책꽂이 등 9개 종류의 목공 소품 제작을 비롯해 스텐실, 아크릴 물감 등을 활용한 소품 꾸미기 등 목공 입문을 위한 기초 실습을 운영했다.

전문가 양성반은 목공공구를 활용한 측정하기, 자르기, 홈파기, 깎기, 대패질, 칠하기와 같은 작품 구상과 도안 작업 위주로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나주시는 이날 수료식을 통해 출석률 70% 이상 수료자 31명(취미반 14명·전문가 양성반 17명)에게 수료증을 교부했다.